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 장 전현진 042-481-5213 서기관 김무경 042-481-5179
	2016년 10월 21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0월 20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청나라에도 가짜 청심환이 수두룩...

- 「지식재산 지키고 상금도 받고 !」 공모전 시상식 개최 -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제7회 지식재산 보호 영상 및 카드뉴스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영상 부문 대상 1팀, 카드뉴스 부문 대상 1팀 등 총 29개 팀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 영상 부문 대상에는 ‘처음과 끝(홍순일, 김영재)’팀의 작품 ‘틀린 상표 찾기’가, 카드뉴스 부문 대상에는 ‘조인주’양의 ‘김씨 할머니네’가 각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 영상 부문 대상작, ‘틀린 상표 찾기’는 연암 박지원이 열하 일기에 기록한 “청나라에도 청심환이 많지만 가짜가 수두룩한데, 조선에서 만든 청심환은 진짜라서 믿을 수 있다”는 등의 글을 인용하면서, 짝퉁 문제는 오래되고 심각한 사회적 이슈임을 보여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영상 부문 대상을 수상한 ‘처음과 끝’팀의 홍순일씨는 “우리가
출품한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보호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더불어 카드뉴스 부문 대상작, ‘김씨 할머니네’는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지역의 명소가 된 식당에 찾아온 상표 브로커가
“식당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며, 사용료를 요구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 이에, ‘김씨 할머니네’는 심사위원으로 부터 “창의적인 표현력과
전달력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그 이면에 있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표현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위 수상자들은 오는 10월 21일 16시, 서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개최하는 시상식에 참가해 상금과 상장을 받게 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지식재산 보호 존중문화 캠페인을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붙임1, 2 : 제7회 지식재산 보호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계획 및 대상 수상작

□ **시상식 개요**

- 일시 및 장소 : 10.21(금), 16:00~17:3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회의실
- 참석자 : 수상자(팀) 전원, 특허청·보호원 관계자 등
- 시상자
 - 대상 및 최우수상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 우수상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장려상 및 입선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대응실장

□ **주요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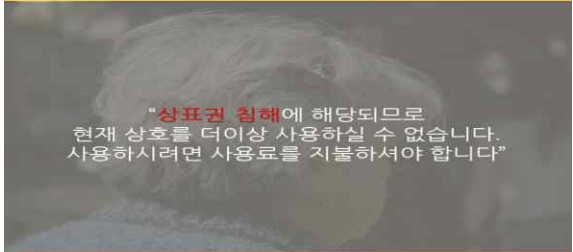
시간	주요내용	비고
16:00~16:05	● 개회사	사회자
16:05~16:10	● 인사말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16:10~16:30	● 수상작 감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작품
16:30~17:00	● 장려상, 입선, 우수상 시상	분쟁대응실장, 보호원장
17:00~17:20	● 최우수상 및 대상 시상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17:20~17:30	● 폐회사 및 기념사진 촬영	사회자

□ **시상내역**

카드뉴스			UCC		
구분	작품수	시상금	구분	작품수	시상금
대상	1점	50만원	대상	1점	200만원
최우수상	2점	각 30만원	최우수상	2점	각 50만원
우수상	4점	각 10만원	우수상	4점	각 30만원
장려상	6점	각 10만원	장려상	3점	각 20만원
입선	4점	각 5만원	입선	2점	각 10만원
계	17점	230만원	계	12점	500만원

* 시상금에 제세공과금 포함

□ 카드뉴스 부문(김씨 할머니네)

김씨 할머니네 식당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20여년 전, 어느 한적한 골목에 김씨 할머니가 식당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한적했던 골목은 할머니의 식당을 중심으로 활발한 식당가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변호사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현재 상호를 더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하시려면 사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할머니에게 주장한 것은 “상표침해금지청구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상표브로커가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이 귀속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김씨 할머니의 상표를 선점하였던 것인데요,
 상표를 선점한 상표브로커들은 상표권을 내세워 사용료 또는 양도비용을 요구하여 산업재산권 절차를 무너뜨립니다. 유명상표의 경우, 상표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 영상 부문 주요장면(틀린 상표 찾기)

